

제4회 한국청년대회 홈스테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요한 6,20)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알렐루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젊은이, 신앙, 성소식별’을 주제로 제15차 세계주교시노드에 전 세계의 주교님들을 소집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킬 창조적인 감수성과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에 젊은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을 식별하고 혼인과 독신 성소를 비롯하여 자신의 직업, 정치적·문화적 활동을 포함한 삶의 모든 분야에서 복음적으로 투신할 것을 바라시며 교회가 젊은이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며 지지하고 지원하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서울대교구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요한 6,20)를 주제로 제4회 한국청년대회를 개최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행복과 기쁨, 어려움의 한계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연대하고 부르심에 투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젊은이의 눈으로 교회와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보고, 복음의 기준으로 식별하며 교회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교회의 초대입니다.

한국청년대회를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어려운 부분이 대회 기간 동안 젊은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청년대회나 아시아청년대회의 경우에도 홈스테이 방식으로 대회를 운영합니다. 참으로 특이한 것은 대회에 참석했던 많은 젊은이가 대회 자체보다도 홈스테이에서 더욱 특별한 교회와 신앙의 은총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지만 신앙의 이유로 환대 받고 그 안에서 같은 신앙을 살아가는 이들의 체험을 나누고 함께하는 체험은 젊은이

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절되고 격리된 삶을 사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기보다는 더 많이 외롭고 사실 더 많이 불안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지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려 들거나 비난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홈스테이에 선뜻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젊은이들과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이며 우리가 받은 신앙을 새로운 세대에 전달하는 복음 선포이며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 안에서 공동체인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의 체험과 고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청년대회 안에서 우리가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체험은 우리 서울대교구를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교구 한국청년대회를 개최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홈스테이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의 공간을 보여주고 제공해 준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대회 기간 동안 젊은이들에게 자그마한 쉴 수 있는 공간과 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만 제공해 주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항은 여건이 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모든 본당에서 약 20명의 청년들을 맞아주시기 위해서는 대략 한 가정당 1~2명 정도로 10~20가정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홈스테이를 통한 신앙공동체의 의미를 구현해 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섬기다 하느님을 만나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나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키 작은 세관장 자캐오도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어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젊은이들을 통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4회 한국청년대회 운영위원회